

저학년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영향요인의 융합적 연구

최숙경
경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Convergence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Confidence in Performing Core Basic Nursing Skills in Lower-Class Nursing Students

Suk-Kyong Choi
Professor, Dept. of Nursing, Kyungdong University, Gangwon, Korea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저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자료수집은 2020년 11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G도에 소재하는 일개 간호대학의 간호학생 21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는 SPSS 21.0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s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차이는 대학생활만족, 실습만족, 학업성취도 및 동료와의 관계이었다.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은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및 학습태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과 학습태도이었으며, 설명력은 32.5%이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저학년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증진을 위한 학습전략과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핵심기본간호술,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학습태도, 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confidence in performing core basic nursing skills(CBNS) for low-grade nursing student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13 nursing students from one nursing college located in G do from November 25 to December 4, 2020.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ies,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21.0. Differences in confidence in performing CBN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were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practical satisfaction, academic achievement,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nfidence in performing CBNS was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learning attitude. The factors influencing confidence in performing CBNS were self-efficacy and learning attitude, and explanatory power was 32.5%.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evelop learning strategies and educational programs and verify the effectiveness of lower class nursing students to increase their confidence in performing CBNS.

Key Words : Nursing Students, Core Basic Nursing Skills, Self-efficacy, Satisfaction in Major, Learning Attitude, Convergence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Kyungdong University Research Fund, 2020.

*Corresponding Author : Suk-Kyong Choi(csk0120@kdu.ac.kr)

Received January 29, 2021

Accepted April 20, 2021

Revised March 5, 2021

Published April 28,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한국간호교육평가원(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KABON)은 간호교육에서 성취해야 할 학습 성과와 필수 성취항목으로 20가지 핵심기본간호술 프로토콜 및 평가채점표를 개발하여 간호대학생의 성취수준을 일정이상 수준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1]. 핵심기본간호술은 간호학 실습교육의 기초가 되며, 간호사가 임상에서 갖추어야 할 능력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실무능력으로 어떠한 임상적 상황에서도 대상자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이다[2]. 그래서 최근 간호교육은 간호실무 상황시 전문가로 충분한 역량과 간호교육의 질적인 변화를 위한 학습전략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3]. 따라서 이론적 지식과 실무수행능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교육과정을 통하여 습득한 기본간호술을 임상현장에 나가 자신감을 갖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파악한 후 수행자신감 증진을 위한 학습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기효능감이 중요하다. 자기효능감은 전문가로서 자신이 기대하는 바람직한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수행역량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4]. 선행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의 중요한 변수로 파악되었으며, 더 나아가 실습 스트레스 감소로 임상수행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5,6]. 이를 통하여 자기효능감은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 두 변인간의 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탐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선택한 전공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개인이 느끼는 정도와 주변 사람들에 의한 평가정도를 의미한다[7]. 선행연구에서 간호학과 선택 동기가 취업이 유리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가장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8]. 그러나 충분한 탐색 없이 전공을 선택하게 될 경우 전공과 적성이 불일치하여 전공만족도가 낮았으며[9], 나아가 과중한 전공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될 경우 낮은 성적과 학과부적응 및 졸업 후 전공직업의 지속적인 유지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0]. 반면에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은 학과수업에 참여도가 높고 학교생활과 교과과정에 보다 적극적

인 행동으로 학습목표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1,12], 전공만족도가 높으면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도 높은 결과[13]를 볼 때 전공만족도가 높을 경우 학습과 학과적응 가능성이 높고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을 증진시키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외에도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의 중요한 변인으로 학습태도를 들 수 있다. 학습태도는 학습과 관련하여 신념, 습관 및 환경 등을 나타내는 행동유형으로 학교 환경에서 학생들이 겪는 경험을 통하여 얻어지는 지속적인 규칙적인 반응을 말하며[14], 한번 형성되면 변화되기 어렵고, 장기간의 고정성과 지속성을 나타내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15]. 선행연구[16]에 따르면 학습태도는 학습만족도 및 수업참여도와 관련성이 있으며, 다른 연구[17]에서도 학습태도는 학습동기 및 문제해결능력과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학년 때 핵심기본간호술기를 습득하므로 이 시기에 좋은 학습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교육의 성과를 높여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증진의 중요한 변인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임상현장에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이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변수로는 전문직관과 자기효능감[18], 학습전이[3], 전공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 및 문제해결[13] 등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이 갖고 있는 자기효능감, 전공에 대한 만족도, 학습태도 또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이들의 관계가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와 학습태도가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에 대한 선행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선행연구들이 주로 임상실습을 경험하거나 졸업을 앞둔 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나[3,13,18,19], 주로 저학년에서 핵심기본간호술을 처음으로 접하기 시작하고, 이 시기는 학습태도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전공필수인 기본간호학실습 교과목을 통하여 핵심기본간호술을 습득하고,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전략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저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학습태도 및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학습태도 및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학습태도 및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연구대상자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일개 간호대학 간호학과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자 및 자료수집

연구 대상자는 G지역에 위치한 일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2학년생으로 전공필수인 기본간호학실습 교과목을 통하여 핵심기본간호술을 습득한 학생들이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11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총 216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3부를 제외한 213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G power 3.1.9 program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95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최소 표본수가 총 194로 산출되어 본 연구의 표본크기 213명이 충족되었다.

2.3 연구 도구

2.3.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Sherer 등[20]이 개발하고 Jung과 Park[21]이 14문항으로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매우자신없음'을 1점, '완전히 자신있음' 5점으로 총 점의 범위는 14점에서 7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

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5$ 이었다.

2.3.2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미국 Illinois 대학에서 개발한 프로그램평가조사(Program Evaluation Survey)로 Kim과 Ha[22]이 수정·보완한 도구는 총 27문항이다. 이를 Kim과 Lee[23]가 '일반만족' 7문항, '인식만족' 5문항, '교과만족' 3문항, 교수-학생 간의 '관계만족' 3문항 총 18문항으로 4개의 하위요인으로 수정·보완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과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Kim과 Ha[2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2$ 이었으며, Kim과 Lee[23]에서는 Cronbach's $\alpha=.9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5$ 이었다.

2.3.3 학습태도

학습태도는 한국교육개발원[24]에서 개발한 측정도구 40문항을 Hwang[25]이 간호대학생의 학습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6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항상 그렇다' 5점으로 이루어진 Likert 5점 척도로 총 점의 범위는 16점에서 8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태도가 좋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역산문항은 2,3,11,15번이며, Hwang[25]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4$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75$ 이었다.

2.3.4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핵심기본간호술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개발한 20개의 평가항목이다[1]. 본 연구에서의 핵심기본간호술은 각 항목별 간호행위에 대해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로 수행자신감에 대한 주관적인 점수를 의미한다. 20개 항목 중 기본간호학 실습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2개 항목(기관절개관관리, 기본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적용)을 제외한 18개 항목에 대해 선행연구인 Bang, Kim[26]의 연구에 근거하여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못하겠다' 1점부터 '능숙하게 할 수 있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수행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Bang, Kim[2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4$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5$ 이었다.

2.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4명의 설문

조사 요원을 선정하였으며, 조사자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자가 직접 조사요원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내용은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설명, 연구 목적 이외의 자료로 사용하지 않음과 연구 참여시 개인 정보 보호와 설문지 작성시 약 10분 정도 소요되며, 불참시 불이익이 없음 및 대상자가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하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한 후 진행하였다. 대상자의 익명을 보장하기 위하여 코딩시 암호화하였으며, 설문지 완성 후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주요 분석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학습태도 및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학습태도 및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학습태도 및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확인을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와 Durbin-Watson 지수를 구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학습태도 및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정도

본 연구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3.58 ± 0.76 , 전공만족도의 일반만족은 4.01 ± 0.67 , 인식만족 4.21 ± 0.68 , 교과만족 3.82 ± 0.74 , 관계만족 3.87 ± 0.76 및 전체는 4.01 ± 0.62 이었다, 학습태도 3.52 ± 0.42 ,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은 3.73 ± 0.62 로 Table 1과 같다.

Table 1. Level of self-efficacy, Satisfaction in Major, Learning attitude, Confidence in Performing CBNS

	M±SD	Min	Max	Range
Self-efficacy	3.58±0.76	1.57	5.00	1-5
Satisfaction in major	4.01±0.62	1.56	5.00	1-5
General satisfaction	4.01±0.67	1.57	5.00	1-5
Social perception satisfaction	4.21±0.68	1.40	5.00	1-5
Curriculum satisfaction	3.82±0.74	1.33	5.00	1-5
Relationship satisfaction	3.87±0.76	1.67	5.00	1-5
Learning attitude	3.52±0.42	2.31	4.50	1-5
Confidence in Performing CBNS	3.73±0.62	2.00	5.00	1-5

CBNS=Core basic nursing skills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학습태도 및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본 연구 대상자는 총 213명으로 일반적 특성에서 여학생이 80.8%이며, 연령은 24세 미만이 96.7%이었다. 간호학과 선택동기는 '높은 취업률 때문에'가 43.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자신의 적성과 맞아서'가 23.0%이었다. 대학생생활만족은 '만족을 포함한 매우만족'이 82.7%이었으며, 실습만족은 '만족을 포함한 매우만족'이 99.1%이었다. 학업성취도는 '3.0~3.9'가 69.5%, 실습시 동료와의 관계는 ' 좋음'이 76.1%로 가장 많았으며, 간호사의 이미지는 '긍정적' 72.8%, '보통' 23.5% 및 '부정적'인 응답자는 3.8%로 Table 2와 같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학습태도 및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의 차이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대학생생활만족 ($F=10.74, p=.000$)과 실습만족($F=7.37, p=.001$)에서 유의한차이가 있었다. 일반적 특성 중 차이가 있는 부분 의사후분석 결과 자기효능감은 대학생생활만족에서 '매우만족'인 경우가 '만족'이나 '만족하지 않음' 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간호선택동기($F=4.27, p=.002$), 대학생생활만족($F=22.03, p=.000$)과 실습만족($F=12.53, p=.000$), 학업성취도($F=5.93, p=.003$), 동료관계($F=6.88, p=.001$), 간호사 이미지($F=11.87, p=.000$)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일반적 특성 중 차이가 있는 부분의 사후분석 결과 전공만족도는 간호학 선택동기에서 '자신의 적성과 맞아서' 인 경우가 '학교성적에 맞추어서'와 '타인의 권유' 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전공만족도가 높았다. 대학생활만족은 '만족'하는 경우가 '만족하지 않음' 보다, '매우 만족'이 '만족' 보다 전공만족도가 높았다. 학업성취도는 '4.0이상' 과 '3.0-3.9'가 '2.9 이하' 보다, 동료관계는 '좋음'인 경우가 '좋지 않음' 보다, 간호사 이미지는 '긍정적임'인 경우가 '부정적임' 보다 전공만족도가 높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태도는 간호학 선택 동기(F=3.04, p=.018), 대학생활만족(F=16.50, p=.000), 실습만족(F=19.21, p=.000), 학업성취도(F=9.02, p=.000), 동료관계(F=7.76, p=.001) 및 간호사 이미지(F=8.89, p=.000)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일반적 특성 중 차이가 있는 부분의 사후분석 결과 학습태도는 간호학 선택동기에서 '자신의 적성과 맞아서' 인 경우가 '학교성적에 맞추어서' 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학습태도가 좋았으며, 대학생활만족은 '매우 만족'이 '만족'과 '만족하지 않음' 보다, 학업성취도는 '4.0이상' 과 '3.0-3.9'가 '2.9

이하' 보다, 간호사 이미지는 '긍정적임'과 '보통'인 경우가 '부정적임' 이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학습태도가 좋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은 대학생활만족(F=3.16, p=.043), 실습만족(F=9.10, p=.000), 학업성취도(F=3.40, p=.035) 및 동료관계(F=5.98, p=.003)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일반적 특성 중 차이가 있는 부분의 사후분석 결과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은 대학생활만족에서 '매우 만족'이 '만족하지 않음' 보다, 학업성취도는 '4.0이상' 이 '2.9이하' 보다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이 높았으며, Table 2 와 같다.

3.3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학습태도 및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과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과 다른 변수간

Table 2. Differences of Self-efficacy, Satisfaction in Major, Learning Attitude, Confidence in Performing CBN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Category	n(%)	Self-efficacy	t/F (p)	Satisfaction in major	t/F (p)	Learning attitude	t/F (p)	Confidence in Performing CBNS	t/F (p)
			M±SD		M±SD		M±SD		M±SD	
Gender	Female	172(80.8)	50.45±10.06	1.04 (.300)	72.72±10.25	1.36 (.176)	56.72±6.34	2.06 (.040)	66.87±11.41	-0.54 (.591)
	Male	41(19.2)	48.54±12.58		70.10±14.10		54.34±7.68		67.93±10.61	
Age(yrs)	19-23	206(96.7)	50.23±10.57	1.15 (.253)	72.30±11.02	0.64 (.524)	56.35±6.69	1.08 (.280)	67.21±11.31	0.96 (.331)
	≥24	7(3.3)	45.57±10.95		69.57±14.16		53.57±5.88		63.00±9.07	
Motivation of department choice	According to School records ^a	13(6.1)	53.85±11.78	2.37 (.054)	68.08±13.98	4.27 (.002) e)a,b	53.85±6.47	3.04 (.018) e)a	68.92±15.71	1.21 (.309)
	Recommendation by others ^b	18(8.5)	49.11±9.05		68.50±9.40		54.22±6.55		65.89±10.90	
	High employment rate ^c	92(43.2)	47.80±9.57		70.13±10.79		55.43±6.64		65.82±11.18	
	Because of the nurses's appeal ^d	41(19.2)	51.78±10.50		75.00±10.56		56.83±5.44		66.51±11.31	
Because of own aptitude matches ^e	49(23.0)	52.29±12.00	76.24±10.45	58.71±7.19	69.86±9.92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Very satisfied ^f	24(11.3)	58.38±10.04	10.74 (.000) a)b,c	82.75±9.46	22.03 (.000) a)b)c	62.13±7.24	16.50 (.000) a)b,c	71.67±13.89	3.16 (.043) a)c
	Satisfied ^b	152(71.4)	49.69±10.36		72.28±9.89		56.18±5.73		67.03±10.24	
	Dissatisfied ^c	37(17.4)	46.30±9.19		65.11±11.51		52.76±7.43		64.30±12.63	
Practice Satisfaction	Very satisfied	103(48.4)	52.87±10.70	7.37 (.001)	75.94±11.92	12.53 (.000)	58.96±6.24	19.21 (.000)	70.34±10.82	9.10 (.000)
	Satisfied	108(50.7)	48.00±2.83		68.76±9.09		54.50±3.54		64.06±10.79	
	Dissatisfied	2(0.9)	47.45±9.92a		66.50±3.54		53.71±6.10		61.50±16.26	
Academic achievement	≥4.0 ^g	23(10.8)	53.17±9.19	2.95 (.055)	73.65±9.86	5.93 (.003) a,b)c	58.87±5.88	9.02 (.000) a,b)c	71.57±10.22	3.40 (.035) a)c
	3.0-3.9 ^b	148(69.5)	50.48±10.76		72.45±10.76		56.86±6.33		67.22±11.40	
	≤2.9 ^c	42(19.7)	46.98±10.15		67.05±11.66		52.69±7.03		64.10±10.55	
comradeship	Good ^h	162(76.1)	50.91±10.22	2.18 (.116)	73.64±10.31	6.88 (.001) a)c	57.22±6.27	7.76 (.001)	75.33±18.18	5.98 (.003)
	Usually ^b	48(22.5)	47.60±10.84		68.19±10.80		53.35±6.75		68.28±11.12	
	Bad ^c	3(1.4)	45.00±21.66		59.33±31.01		50.67±12.58		62.50±10.12	
Nurse's Image	Positive ^h	155(72.8)	50.96±10.67	2.00 (.137)	74.22±10.29	11.87 (.000) a)c	57.24±6.44	8.89 (.000) a,b)c	67.28±11.26	1.09 (.338)
	Neutral ^b	50(23.5)	47.64±9.97		67.84±9.41		54.36±5.69		65.70±10.42	
	Negative ^c	8(3.8)	48.25±11.46		60.63±20.10		49.13±10.12		71.75±15.49	

CBNS=Core basic nursing skills

의 관계는 자기효능감($F=.50, p=.000$), 전공만족도 ($F=.48, p=.000$) 및 학습태도($F=.49, p=.000$)가 좋을수록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이 높았으며,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Table 3과 같다.

Table 3. Correlation between Self-efficacy, Satisfaction in Major, Learning Attitude, Confidence in Performing CBNS

	Self-efficacy	Satisfaction in major	Learning attitude	Confidence in Performing CBNS
Self-efficacy	1			
Satisfaction in major	.58** (.000)	1		
Learning attitude	.52** (.000)	.70** (.000)	1	
Confidence in Performing CBNS	.50** (.000)	.48** (.000)	.49** (.000)	1

CBNS=Core basic nursing skills

4. 논의

본 연구는 저 학년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학습태도 및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의 정도를 파악하고,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저학년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제고를 위한 학습전략과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대학생활만족과 실습만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학생활만족은 매우만족에서, 실습만족도 매우만족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실습만족도가 높은 연구결과[27]와 일치하였다. 이는 실습만족도가 자기효능감 향상에 기여하므로 실습수업시간이 만족될 수 있는 다양한 교수 학습법을 적용한 수업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학업성취는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선행연구[5]에서 학

Table 4. Factors Influence of Confidence in Performing CBNS

Variable	B	SE	β	t	p	tolerance	VIF
(Constant)	19.210	8.693		2.210	.028		
Self-efficacy	.301	.075	.283	3.994	.000	.634	1.577
Satisfaction in major	.153	.088	.151	1.742	.083	.422	2.367
Learning attitude	.367	.142	.218	2.589	.010	.450	2.221
R=.592 R ² =.350 Adjusted R ² =.325, F=13.735, p<.001, Durbin-Watson : 1.754							

CBNS=Core basic nursing skills

3.4 연구대상자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영향 요인

대상자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및 학습태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을 검정하기 위한 공차한계(Tolerance)는 .422-.634이었으며, 분산팽창지수(VIF)는 1.577-2.367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잔차의 독립성은 Durbin-Watson에서 1.754로 2에 근접하여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을 예측하는 모형에 대한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F통계 값은 13.735, 유의확률은 <.001으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에 가장 큰 영향력은 자기효능감($\beta=.283, p=.000$)이었으며, 그 다음은 학습태도($\beta=.218, p=.010$)로 그 설명력은 32.5%로 Table 4와 같다.

업성적이 '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하'의 경우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과 차이가 있어 추후 반복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3.58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연구결과 3.56점[18]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다른 선행연구에서 3학년 3.60 및 4학년 3.73점[28]으로 본 연구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3학년 대상 2.92점[29]으로 보통이하인 결과도 있었다. 이는 임상실습경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타 대학에 비해 낮은 것과 관련하여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의 중요한 변수인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결과 해석에 있어 학년과 지역별 차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간호학 선택 동기, 대학생활만족, 실습만족, 학업성취도, 동료관계

및 간호사 이미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학선택 동기는 자신의 적성과 맞아서 선택한 경우 전공만족도가 높았으나, 다른 연구[5]는 차이가 없어 추후 반복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대학생활만족은 매우만족인 경우 전공만족도가 높았으나, 대학생활만족과 관련하여 조사된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웠다. 그러나 유사연구로 간호대학생 대상 대학생활만족과 전공만족은 임상수행능력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30]. 이는 임상수행능력 향상은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에 대한 긍정적 영향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 만족할 만한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과 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실습만족이 높은 경우 전공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5]와 같은 결과를 얻었으며, 학업성취도에서 학업성적이 좋은 경우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5,13]과 일치하였다. 따라서 실습수업을 운영함에 있어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교과운영과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전공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수 학습전략이 필요하다. 동료와의 관계가 좋은 경우 전공만족도가 높았으며, 다른 연구[13]도 같은 결과를 얻었다. 간호사 이미지가 긍정적인 경우 전공만족도가 높았으며, 선행연구[31]와 같은 결과이다. 또한 학년별 간호사 이미지를 비교한 연구[32]에 따르면 임상실습이 없는 1,2학년이 임상실습을 경험한 3,4학년보다 간호사 이미지 점수가 높아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임상실습 경험 여부가 간호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반복연구를 통하여 확인이 필요하다. 전공만족의 하위영역에서 인식만족이 가장 높고 교과영역이 가장 낮았다. 선행연구[8]는 인식만족이 가장 높은 것은 동일하나 관계만족이 가장 낮아 본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인식만족이 가장 높은 것은 본 연구의 경우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학과 선택시 적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지원한 결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교과영역이 가장 낮은 것은 교과목표 전공지식이나 교과내용에 대해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어 추후 반복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전공만족도는 4.01점으로 같은 학년 대상 선행 연구에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 전 4.10점, 핵심기본간호술 수행 후 4.27점[33]으로 차이가 있었으며, 저학년 대상 2.97점[5] 및 임상실습을 경험한 3,4학년 대상 3.65점[34]으로 다양한 결과가 있었다. 그러나 전공만족도가 높을 경우 학과적응이 높고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이 높은 것[13]과 관련이 있기에 전공만족도는 중요한 변인으로 전공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과 다

양한 요인들에 대한 관련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태도는 간호학선택 동기, 대학생활만족, 실습만족, 학업성취도, 동료관계 및 간호사 이미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학 선택 동기는 자신의 적성과 맞아서 선택한 경우 학습태도가 가장 좋았으며, 선행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로 나타났다 [3]. 그러나 다른 연구[16,17].에서 간호사의 호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일치하지 않아 향후 반복연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학업성취도와 동료관계가 좋을수록 학습태도가 좋은 것과 관련하여 선행연구[16]에서 학교성적과 동료관계가 좋을수록 학습태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학교성적이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증진 프로그램의 운영과 학업성적을 고려한 개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대학생활만족과 실습만족이 높을수록 학습태도가 좋았으며, 간호사 이미지도 긍정적일수록 학습태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습태도와 관련하여 다양하게 조사된 연구가 없어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대상자의 학습태도는 3.52점(총점평균 56.26점)으로 간호사대상 선행연구에서 53.05점[1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학년에서 좋은 학습태도는 학습전략에 긍정적 영향으로 예측되어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추후 반복연구를 통하여 확인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은 대학생활만족, 실습만족, 학업성취도 및 동료관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학생활만족과 실습만족은 매우 만족하는 경우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이 높았으며, 유사연구로 대학생활만족 및 실습만족인 경우 임상수행능력이 향상되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30]. 이를 통하여 간호대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교내프로그램의 운영과 만족스런 실습수업 운영을 위한 수업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업성취도는 학업성적이 좋은 경우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5,13]와 일치하였다. 이는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향상으로 성적이 낮은 학생과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의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 상시 오픈랩 운영 등 재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 외에도 성적을 고려한 교수학습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실습 동료와의 관계는 좋음인 경우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이 높았으며, 유사연구[13]로 대인관계가 좋은 경우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기본간호

술 수행자신감은 3.73점으로, 선행연구에서 2학년 대상 3.42점[5], 4학년 대상 2.96점[3], 3.4학년 대상[35] 2.51점 및 3.36점으로 오히려 임상실습을 경험한 대상자가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임상실습 경험 대상자에 따라서도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핵심기본간호술 재교육 전·후 비교[36]에서 교육 전 3.17점 교육 후 4.11점인 것과 핵심기본간호술 강화프로그램 전·후 비교[37]에서 강화프로그램 전 3.70점 강화프로그램 후 4.52점이었다. 이는 핵심기본간호술 재교육과 강화프로그램을 통하여 특히 교육 후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과 관련하여 본 연구도 실습수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기에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점수가 높은 것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향후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핵심기본간호술 강화를 위한 교내실습교육은 학년 및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과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및 학습태도와와의 상관관계는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및 학습태도가 좋을수록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이 높았으며,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선행연구[18,29,33]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이 높아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자기효능감이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을 높이는 효과적인 교육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되어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공만족도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습태도가 좋고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이 향상되어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습태도가 좋고[16],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도 향상된 결과[5,31,33]와 일치하였다. 이 외에도 전공만족도가 높으면 임상수행능력이 향상된다는 연구결과[30]와 시뮬레이션교육 후 전공만족도가 향상된다는 연구결과[38]도 있어, 전공만족도는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향상은 물론 나아가 임상실습과 시뮬레이션 교육 과정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전공만족도 증진을 위한 학습전략이 필요하다. 학습태도와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가 없어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학습태도는 수업참여도와 학습만족에 기여하고[16], 학습동기와 문제해결능력 및 수업참여도에 긍정적인 영향[17]으로 미루어볼 때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에도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로 판단되어 향후 학습태도와 관련된 지속

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기효능감과 학습태도가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으며, 설명력은 32.5%이었다. 그 중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수는 자기효능감 이었으며, 그 다음은 학습태도와 전공만족도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학생들이 스스로 학습을 조절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과 긍정적인 학습태도가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후 저학년 간호대학생 대상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한 포괄적인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저학년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행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차이는 대학생활만족, 실습만족, 학업성취도 및 동료와의 관계이었다.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은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및 학습태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과 학습태도이였으며, 설명력은 32.5%이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일개 간호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으며, 임상경험이 없는 2학년생들로 연구결과에 대한 일반화와 결과해석에 한계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저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근거를 마련함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저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학습전략과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1]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4). Nurse core competency and nursing education learning outcomes, Retrieved September 3, 2013, from : <http://www.kabon.or.kr>.
- [2] S. N. Park & S. K. Lee. (2008). Factors influencing basic nursing skil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5(1), 6-13.
- [3] I. S. Lee & C. S. Park. (2015). Factors influencing confidence in performance competence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by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2(3), 297-307. DOI : 10.7739/jkafn.2015.22.3.297
- [4] D. Q. Zhu, I. J. Norman & A. E. While. (2013). Nurses' self-efficacy and practices relating to weight management of adult patients: a path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Nutrition and Physical Activity*, 10(1), 131. DOI : 10.1186/1479.5868.10.131
- [5] H. S. Lee & S. M. Ahn. (2020). The Influence of Learning Self-efficacy, Confidence in Performance of Fundamental Nursing Skills and Satisfaction with Practicum on Nursing Students' Satisfaction in major.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4), 251-262 DOI : 10.14400/JDC.2020.18.4.251
- [6] S. J. Whang.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2(2), 205-213.
- [7] S. Y. Yun & M. S. Kim. (2014). A study on the relevance among Self efficacy, Major satisfaction, Nursing ethics values in Nursing students before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2), 363-372. DOI : 10.14400/JDC.2014.12.2.363
- [8] K. H. Lee. (2019). Convergence between Ego-Resilience, Major Satisfaction and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Convergence Society*, 10(3), 297-306. DOI : 10.15207/JKCS.2019.10.3.297
- [9] K. H. Yang, J. R. Lee & B. N. Park. (2012). Factors Affecting Adaptation to School Life of Freshmen Enrolled in Nursing at a Junior Colleg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1), 5-13. DOI : 10.5977/jkasne.2012.18.1.005
- [10] J. E. Go, M. H. Kim, E. J. Kim, H. J. Kim, J. E. Um, H. A. Lee, N. R. Jeong & D. E. Jeong. (2011). The relation between nursing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their nursing professionalism. *Journal of Ewha nursing*, (45), 29-44.
- [11] J. H. Oh. (2014). The influencing factors of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on Colleg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10), 873-884. DOI : 10.5392/JKCA.2014.14.10.873.
- [12] C. S. Shim & S. Y. Park.(2018). Effects of a Simulator-Based Delivery Education on the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linical Competence of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2(5), 199-207. DOI : 10.21184/jkeia.2018.7.12.5.199
- [13] S. H. Han. (2019). Effecting Factors Confidence of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performance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 9(9), 569-579. DOI : 10.35873/ajmahs.2019.9.9.049
- [14] I. J. Sung, B. S. Kwak, T. S. Park, S. H. Im, M. K. Yang, S. M. Han et al. (1987). *A study of thinking ability development program*. Korean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 [15] C. Kim. (2002). *The effects of christian meditation on attention and attitude of learning among college students*. Ph.D. dissertation, Chung Ang University.
- [16] S. Kang. (2018). A study on Learning Attitude, Class Participation, and Learning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in Fundamental Nursing Curriculum.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4), 289-297. DOI : 10.14400/JDC.2018.16.4.289
- [17] S. O. Kim. (2017). Effects of Team-based Learning on Learning Attitude, Learning Motivation, Problem Solving Ability, Participation in Lesson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4), 351-363. DOI : 10.14400/JDC.2017.15.4.351
- [18] G. H. Choi, M. J. Hong & S. H. Kwon. (2019). Factors Influencing Confidence in Performing Fundamental Nursing Skills of Nursing Students: Focused on Professionalism and Self- efficac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6(2), 107-116. DOI : 10.7739/jkafn.2019.26.2.107
- [19] D. O. Kim, S. W. Byun & H. J. Lee. (2019). The Factors Influence of Clinical Competency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During the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7), 85-92. DOI : 10.5762/KAIS.2019.20.7.85
- [20] M. Sherer, J. E. Maddux, B. Meracndante, S. Prentice-Dunn, B. Jacobs & R. W. Rogers.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DOI : 10.2466/pr0.1982.51.2.663
- [21] J. H. Jung & H. S. Park. (2002). A study on smoking factors and self-efficacy of vocational female high schooler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8(2), 271-283.
- [22] K. H. Kim & H. S. Ha. (2000).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1), 7-20.
- [23] D. J. Kim & J. S. Lee. (2014).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elf-Efficacy on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2), 244-254. DOI : 10.5977/jkasne.2014.20.2.244
- [24]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1991).

-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programs for improving thinking(IV)*. Seoul: Korean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 [25] S. Y. Hwang. (2003). *Effects of problem-based learning on the knowledge achievement, critical thinking ability, attitude and motivation toward learning of nursing students*. PhD.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26] S. S. Bang & L. O. Kim. (2014). Relationship among essentials of fundamental nursing skills performance, stress from work and work capability of new clinical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4), 628-638.
DOI : 10.5977/jkasne.2014.20.4.628
- [27] W. Lauder, R. Watson, K. Topping, K. Holland, M. Johnson & M. Porte. (2008). An evaluation of fitness for practice curricula: Self-efficacy, support and self-reported competence in preregistration student nurses and midwives. *Journal of Clinical Nursing*, 17(14), 1858-1867
- [28] Y. S. Ham & H. S. Kim. (2012). Comparison of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anticipating graduation according to nursing educational syste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9(3), 363-373.
DOI : 10.7739/jkafn.2012.19.3.363
- [29] M. Y. Jho. (2014). Effects of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Education on Self-efficacy, Clinical Competence and Practice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1(3), 292-301.
DOI : 10.7739/jkafn.2014.21.3.292
- [30] G. J. Park. (2019). Convergence Study on the Effects of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Education on Clinical competence.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 9(11), 47-54.
DOI : 10.22156/CS4SMB.2019.9.11.047
- [31] E. Y. Hong. (2017). Convergence Study of Mediating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e Image and Satisfaction of Major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10), 85-93.
DOI : 10.15207/JKCS.2017.8.10.085
- [32] H. H. Cho & N. H. Kim. (2014). Relationships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Nurse Image, and Core Elemen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that Nursing Students Perceiv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4), 548-557.
DOI : 10.5977/jkasne.2014.20.4.548
- [33] L. S. Hyeon & Y. J. Bae. (2017). The Effects of Convergence-Based Education on Core Basic Nursing Skills on the Self-efficacy, Confidence and Department Satisfaction of Lower-Class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Convergence Society*. 8(1), 163-171.
DOI : 10.15207/JKCS.2017.8.1.163
- [34] M. J. Chae & H. J. Jung. (2016). Mediating Effect of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on the Relation between Satisfaction with Major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10(3), 213-222.
DOI : 10.12811/kshsm.2016.10.3.213
- [35] H. S. Joen. (2018). A Study of Convergence on Experiences of Clinical Performance and Self-Confidence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11), 569-579.
DOI : 10.15207/JKCS.2018.9.11.569
- [36] E. J. Yoon & Y. M. Park. (2017). The Effects of Reeducation on Core Basic Nursing skills on Nursing Students' Competence, Confidence and Anxiety.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7(5), 39-45.
DOI : 10.22156/CS4SMB.2017.7.5.039
- [37] Y. O. Ha & J. Y. An. (2017). A Convergence Study on the Effects of Core Nursing Skills Improvement Program on Nursing Skills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Convergence Society*, 8(5), 223-231.
DOI : 10.15207/JKCS.2017.8.5.223
- [38] E. J. Kim & S. J. Kang. (2016). Effects of the simulation on the Ego Resiliency, Self-Efficacy and Satisfaction of Major of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 324-330.
DOI : 10.15207/JKCS.2017.8.5.223

최 숙 경(Suk-Kyong Choi)

[정회원]



- 2002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
- 2007년 2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보건학 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경동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건강증진, 정신건강

· E-Mail : csk0120@kduniv.ac.kr